

유럽, 태양광 중국 의존도 탈피 총력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45% 목표 독일 “태양광 제2의 봄 명약관화” 모듈·발전설비 등 자체 생산 나서

유럽이 태양광 모듈 생산에 있어 중국업체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생산을 늘리기 위한 추격전에 나섰다. 독일은 제2의 태양광 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17일 독일 경제기후보호부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오는 2030년까지 에너지 사용량의 45%를 태양광, 수소,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서 확보하기로 결의했다. 2021년 기준 EU 에너지 사용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22%에 불과한 만큼 매년 100GW의 풍력·태양광 발전시설을 신설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하루에 축구장 17개 규모의 태양광 시설과 풍력발전기 20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다.

유럽 최대 경제 대국 독일도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독일은 2030년까지 전력 소비의 80%, 2035년까지는 100%를 재생에너지로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법에 2030년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용량을 215GW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정했다.

지난해까지 설치된 독일의 태양광 발전 용량이 8GW였는데, 2026년까지 연간 발전 용량을 22GW씩 늘려 2030년 215GW까지 확대하려면 역시 갈 길이 바쁘다.

하지만 독일 내지 유럽의 중국 태양광 의존도가 러시아에 대한 가스 의존도보다 훨씬 높은 상황인 점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당장, 프라운호퍼 태양광 에너지시스템 연구소(ISE)의 추산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 세계 태양광 모듈 생산량 중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은 1%, 미국과 캐나다는 3%뿐이고, 중국 비중은 75%, 아시아 비중은 94%에 달한다.

그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이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추산에 따르면 중국은 기업들의 태양광 발전 용량 기술개발에 500억 달러(약 64조원)를 지원했다. 이는 유럽의 10배 이상 수준이다.

이에 EU와 독일은 자체 태양광 산업 생태계를 부활시키기 위해 고심 중이다.

EU는 2030년에 태양광산업 자체 생산 용량이 30GW에 달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독일 정부도 역대 태양광 생산역량 재구조를 목표로 태양광 모듈 및 핵심 부품 제조 기업들을 유럽연합(EU) 외 제3국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계 최대 태양광업체인 중국 론지(Longi)는 이와 관련, 독일에 유럽 내 첫 공장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유럽시장은 론지에 있어 매출 50%를 차지하는 내수 시장에 이어 매출 20%가량을 차지하는 2위 시장이다. /연합뉴스



리비아에서 유엔 지원 기다리는 수단 난민 북아프리카 수단 정부군과 준군사조직인 신속지원군(RSF) 간 무력 분쟁이 석 달을 넘긴 가운데, 수단 난민들이 15일(현지시간) 리비아 트리폴리 소재 유엔난민기구(UNHCR) 사무실 앞에서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 이집트가 추진 중인 평화 중재에 정부군과 RSF 모두 관심을 보이면서 이날 회의 재개를 위해 정부군이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 도착했다. RSF의 도착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日국민 80% “정부 오염수 방류 설명 부족”

기시다 지지율도 30%대로 폭

일본 정부가 올여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추진하는 가운데 일본 국민 5명 중 4명은 정부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도통신이 14~16일 18세 이상 전국 시민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염수 방류에 관한 일본 정부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응답이 80.3%로 집계됐다고 16일 보도했다. 정부 설명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16.1%에 그쳤다.

방류로 인해 소문 피해(풍평 피해)가 일어날 것인지 묻자 ‘큰 피해가 일어날다’가 15.8%, ‘어느 정도 일어날다’가 71.6%로 어업인 등에 대한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87.4%에 달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앞서 11일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어협) 회장, 14일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을 각각 만나 소문 피해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어업인들은 방류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고수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후쿠시마현 어협에 관계자의 이해를 얻지 않으면 오염수를 처분하지 않겠다고 문서로 약속한 바 있다.

교도 조사에서 기시다 후미오 내각 지지율은 34.3%로 지난달 조사보다 6.5%포인트 떨어졌다. 일본판 주민등록증인 ‘마이넘버 카드’와 관련된 문제 등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러시아, 흑해곡물협정 중단 가능성

푸틴 “서방 러시아 제재 완화 필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자정에 만료되는 흑해곡물협정을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전날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대러시아 제재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같은 태도를 취했다.

흑해곡물협정은 러시아가 작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전쟁터로 돌변한 흑해에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선이 안전하게 다니도록 한 합의다.

곡물선은 우크라이나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항로를 지나 튀르키예 보스포루스 해협을 통해 세계 시장으로 나간다. 튀르키예는 이스탄불 항구에서 오가는 곡물선을 붙들며 무기운송 등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자 검사한다.

작년 7월에 유엔과 튀르키예의 중재 하에 처음으로 타결된 이 협정 덕분에 농업대국 우크라이나는 그간 세계에 곡물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공급했다.

그 때문에 협정이 효력을 잃도록 할 수 있다는 러시아의 으름장은 세계 식량시장을 불모로 한 협박으로 읽힐 여지가 있다.

유엔 자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흑해곡물협정이 발효된 이후 밀, 옥수수 등 3280만 톤(t)의 식량을 수출해 중동, 아프리카 등지의 식량난을 완화했다.

수출된 곡물의 양을 보면 저개발국은 전쟁 전과 다름없었고 고소득국, 중소득국에는 밀과 옥수수 수출량이 90%, 60% 정도 감소했다.

흑해곡물협정이 중단되면 저개발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도 식량 가격 상승으로 민생에 고통을 겪을 수 있다.

지구촌 대다수 국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행기 이후로 이미 급격한 물가 상승에 시달려왔다.

로이터 통신은 흑해곡물협정이 적용되는 마지막 곡물선이 16일 우크라이나 오데사 항구를 떠나 공급이 잠정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서안지구 총격 사건 현장 살피는 이스라엘군 16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남성이 요르단강 서안지구 테코아 유대인 난민촌 부근 교차로에서 이스라엘인들이 탄 차량을 향해 총격을 가해 3명이 부상했다. 용의자는 총격 후 달아났다. 사진은 이날 사건 현장을 살펴보는 이스라엘군 모습. /연합뉴스

프랑스, 무슬림 인권운동가 추방...“안보 위협”

정부 “테러리스트 위협 커진 상황”

프랑스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무슬림 인권 운동가를 추방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1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무슬림 공동체 지원 단체 ‘케이지’ 간부인 무함마드 라바니는 지난 11일 프랑스 파리에 도착했다가 강제로 영국으로 추방됐다.

그는 이날 파리에서 현지 취재진 및 시민사회 지도자들과 만날 예정이었으나 프랑스 정부의 입국 금지 통보를 받고 다시 런던행 비행기로 떠났다는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추방 이유로 “테러리스트 위협이 커진 상황에서 그가 있는 것은 프랑스 내부 안보와 공공질서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들었다.

이는 지난해 10월 나온 문서를 근거로 한 조치다.

당시 라바니는 한 달 전인 그해 9월 케이지 주최 행사에서 프랑스 정부가 “인종차별적인 정부 의제”로 무슬림 공동체를 탄압한다고 주장했다.

케이지 측은 추방이 “터무니없는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라바니가 추방에 앞서 프랑스 구금 시설에 24시간 불잡혀 있으면서 경찰 심문을 받기도 했다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프랑스 정부는 케이지를 겨냥해서도 이 단체가 이슬람국가(IS) 테러리스트인 이른바 ‘지하디 존’을 지원한다고 보고 있다.

프랑스의 이같은 입국 금지령은 앞서 지난달 알제리계 10대 소년 1명 경찰 총에 맞아 숨진 것을 불씨로 전역에서 극렬 시위가 번진 이후 나온 것이기도 하다.

당시 수일간 이어진 시위로 파리를 포함한 곳곳에서 일부 폭도의 방화, 약탈 등이 속출하면서 이 주민 정책을 둘러싼 프랑스 내부의 분열상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4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